

금호타이어 노조 전면파업 돌입

3월25일 하루 광주·곡성공장에서 ...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3월25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광주공장은 오전 6시30분부터 곡성공장은 오전 7시부터 각각 파업에 들어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그동안 수차례 교섭 요청에도 회사는 2010년 임금단체협상 합의만 앞세우며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며 “조합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교섭 촉구를 위한 하루 경고성 전면파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공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하는 집회를 갖고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직장폐쇄로 대응하기로 해 노사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파업에 대응해 시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직장폐쇄를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며 “노조는 오늘 하루 파업 이후에도 3월29일 확대간부 파업을 예고하는 등 파업 유보일 뿐이어서 확실하게 파업 철회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임금체계 조정) ▲타임오프 논의 ▲2010년 임금협상 재교섭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평화유지 의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10년 노사가 합의한 임금단체협상이 2011년 4월까지 유효하다며 파업은 불법 쟁의행위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25>